

서구의 자기반성으로서의 종교: 타우베스의 정치신학적 『리바이어던』 해석

김태연*

목 차

1. 들어가며
2. 한국에서의 타우베스에 대한 관심
3.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그 현재성에 대한 논의
4. 타우베스의 홉스와 『리바이어던』 해석
5. 나가며: 타우베스의 정치신학적 해석

1. 들어가며

유대학자이자 종교철학자, 야콥 타우베스(Jacob Taubes, 1923-1987)는 동 유럽의 유서 깊은 랍비가정 출신이자 정통 랍비훈련을 거친 성직자였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한 그는, 1936년 아버지가 스위스 취리히 회당으로 발령된 덕택에 온 유럽을 휩쓴 유대인 탄압과 홀로코스트의 참극을 피할 수 있었다. 스위스 바젤과 취리히에서 철학, 역사학, 사회학, 문학을 수학했으며 예루살렘 히브리대학에서 종교사회학을 가르쳤으며, 이후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종교사회학과 종교사 교수로 활동하였다. 1966년 이후로는 베를린 대학에서 유대학과 해석학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과거 나치에 협력했던 법학자, 정치철학자인 칼 슈미트(Carl

* 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조교수

Schmitt, 1888-1985)와 운명적으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관계였으나, 그와의 학문적이며 인간적 교류를 감행했다. 이는 독일어를 모어로 하는 유대인으로서 슈미트와 하이데거와 같은 인물들이 나치즘에 동조했던 문제, 나치즘과 세계 대전을 일으킨 서구와 그 문화적 배경이 되는 그리스도교 문제, 또 그리스도교가 유래했음에도 타자화 되어왔던 유대교와 근대성의 문제 등에 천착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본고에서는 타우베스가 홉스의 저작 『리바이어던』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에세이의 주요 내용과 그 해석의 의의를 고찰한다. 유대교 랍비이자 종교철학자, 그리고 나치 전력의 슈미트가 처했던 상황적 맥락과 그 철학적, 정신적 운동성을 타우베스가 어떠한 문제의식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조명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살펴볼 에세이는 1979년에 한 신문지상에 게재되었으며 1983년에 그가 편집한 책의 글로서 재출간된 것이다. 슈미트 생존 시기에 출판된 글이기에 타우베스와 슈미트간의 서신과 타우베스의 다른 글에 대한 정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서구의 많은 학자들의 방대한 성과가 축적되어오고 있는 사안이기에 본고는 거기까지 검토하지는 않으며 타우베스의 본문 분석에 집중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한국에서도 최근 정치철학계에서 슈미트의 정치신학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종교적인 것’과 관련되어 확장되는 현장에 대해 생각해본다. 이후 슈미트의 홉스에 대한 정치신학적 해석이 등장한 이래, 현대 자유주의, 의회민주주의의 문제점과 지속되는 국제분쟁에 관한 비판적 성찰의 맥락 속에서 홉스와 그의 ‘리바이어던’ 상징이 재차 부상하고 그에 대해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본다. 우선 타우베스의 저작에 대한 한국적 수용맥락을 간단히 짚어본다. 그가 계승하며 발전시킨 서구 근대성과 종교, 국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과거에는 물론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사실과, 한국에서의 그에 대한 관심은 단지 서구사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관성적 반응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타우베스의 홉스에 관한 에세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2. 한국에서의 타우베스에 대한 관심

한국에서는 타우베스의 책이 두 권이나 번역, 출간되었다. 두 책 모두 유대-그리스도교 신학과 깊이 연관된 주제였으나 철학연구자들의 노고로 번역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한국에서 출판된 순서로 언급해보자면, 하나는 『바울의 정치신학』(1987)이며, 다른 하나는 『서구 종말론』(1947)이다. 첫 번째 책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이루어진 바울신학에 관한 그의 연속 강의와 세미나 녹음자료를 아스만(Assmann) 부부가 동료들과 함께 정리, 편집하여 출판한 책이다.¹⁾ 다른 한 권은 타우베스의 1947년 박사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이다.²⁾

한국의 철학연구자들 사이에 타우베스에 대한 관심이 일게 된 이유에 대해 간단히 생각해본다면,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과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과 관련해서일 것이다.³⁾ 벤야민은 독일의 유대인으로서 유대-그리스도교적 전통과 신학, 마르크스주의와 역사유물론에 관한 글을 남겼다. 벤야민이라는 인물과 그의 사상은 사후에 재발견되어 현재 까지도 철학, 신학, 문학, 미학, 역사학 등 전방위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타우베스는 그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벤야민과 게르솜 쇼렘(Gershom Sholem), 테오도어 아도르노(Theodor Adorno), 슈미트 사이에 얽힌 내막을 상세히 알고 있던 사람 중 하나였다.

1) 야콥 타우베스, 『바울의 정치신학』, 조효원 옮김 (서울: 그린비, 2012), Jacob Taubes, *Die Politische Theologie des Pauls: Vorträge, gehalten an der Forschungsstätte der evangelischen Studiengemeinschaft in Heidelberg 23.-27. Februar 1987/ nach Tonbandaufzeichnungen redigierte Fassung von Aleida Assmann, herausgegeben von Aleida/Jan Assmann in Verbindung mit Horst Folkers, Wolf-Daniel Hartwich und Christoph Schulte*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1993).

2) Jacob Taubes, *Abendlaendische Eschatologie* (Bern: Francke, 1947), 『서구 종말론』, 문순표 옮김 (서울: 그린비, 2019). 그의 이름으로 출판된 나머지 단행본은 아스만 부부를 비롯한 타우베스의 동료들이 그의 강연이나 글들을 편집하여 출판한 것이다.

3) 벤야민, 슈미트, 타우베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난 상황은 서구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여기에서는 한국적 상황에 대한 진단을 간단히 정리해본다.

현대의 정치적 사안과 관련하여 정치철학적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아감벤은 벤야민의 사유를 깊이 고찰해왔다. 『바울의 정치신학』의 영향 하에서 1998년 아감벤은 『남겨진 시간: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관한 강의』를 내놓았다.⁴⁾ 그는 서문에서 타우베스를 추모하였으며, 타우베스가 로마서 강의를 언급했던 문제의식을 자신의 방식으로 심화시켜 나아갔다. 『남겨진 시간』의 한국어 번역본은 2008년, 타우베스의 『바울의 정치신학』은 2012년도에 출간되는데, 아감벤의 책이 계기가 되어 한국에서 타우베스에 대해 좀 더 주목하게 된 것 같다. 최근 철학연구자들이 이들과 관련된 ‘신학적’ 논의로 한층 더 깊이 들어가게 된 것은, 벤야민과 슈미트의 관계, 타우베스가 사망 직전에 이루어진 ‘바울의 정치신학’ 강의, 그리고 강의 때 슈미트와 타우베스 자신의 관계에 대한 회고와 연관될 것이다.⁵⁾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앞서 언급했듯이 단편적 인식일 것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아감벤을 비롯한 서구의 좌파 지식인들이 서구 민주주의와 그 의회정치의 한계와 문제점을 숙고하며 슈미트의 정치신학적 사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서일 것이며 한국적 상황에서 이러한 고민의 공명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 근대 이래로 전개되는 국내외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렌즈로서 고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그 현재성에 대한 논의

슈미트는 1938년, 『홉스의 국가론에 있어서 리바이어던: 정치적 상징의 의미와 좌절』에서 이전의 홉스 해석에서 아무도 이해하려하지 않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읍기의 해수(海獸) 리바이어던과 『리바이어던』 표지를 장식한 바로크 시대의 우의형상(愚意形像, Emblem)에 대한 함의를

4) 조르조 아감벤, 『남겨진 시간: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관한 강의』, 강승훈 옮김 (서울: 코나투스, 2008), Giorgio Agamben, *Il Tempo Che Resta: Un Commento alle «Lettera ai Romani»* (Bollati Brighieri, 2000).

5) 각주 16) 책 제목

분석하였다.⁶⁾ 17세기의 정치적-신학적 맥락화를 통해, 왜 홉스가 극심했던 종교내전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기예(art)로 탄생시킨 가사의 신(mortal god)이자 거인, 거수(巨獸)인 리바이어던을 종교권력과 세속권력을 통합시킨 국가권력으로 제시했는지 해명하고자 했다.

다른 계몽주의 사상가들과 달리 홉스가 제공한 해결책은 인간 이성에 대한 낙관적 믿음에 기반을 둔 국가 형성이 아니었다. 생존 욕망으로 움직이는 인간은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상태에 놓여있다. 생존하기 위해 인간은 각자의 권력을 상위 권력에 위임하는 신의계약(信義契約, covenant)을 리바이어던과 맺음으로써, 자연상태를 종결시킬 수 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란 국가는 자연적 산물이 아닌 인간들의 타산에 의거한 계약으로부터 비롯된 인위적 산물로서 비히모스(Behemoth)로 상징되는 ‘혁명’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권력으로 기능한다.⁷⁾ 매우 비판주의적인 인간론을 기반으로, 모든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 권리를 주권권력에 양도함으로써 내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홉스의 제안은 오랫동안 서구사 속에서 부정되어오던 계몽주의적 사유의 다른 한 면이었으며 슈미트는 이를 1938년의 글을 통해 밝혀냈다.

그러나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독일에서 1960년대 중반 이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하였고 독일어 번역본 또한 이 시기에 출간되었다. 캐나다의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자 맥퍼슨이 영국의 홉스와 로크의 정치사상을 서구 근대 민주주의 정치이론이 정립하는 계보를 새롭게 해석하여 소유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로 풀어냄으로써, 서구 근대적 민주주의 정치이론의 홉스는 계약을 통해 국가가 구성된다는 이론을 전개한 근대적 사상가로서 알려지기 시작했다.⁸⁾ 홉스의 정

6) Carl Schmitt, *Der Leviathan in der Staatslehre des Thomas Hobbes: Sinn und Fehlschlag eines politischen Symbols* (초판: 1938) (Stuttgart: Klett-Cotta, 2018), 칼 슈미트,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 홉스 국가론에서의 리바이어던』, 김효전 옮김 (서울: 교육과학사, 1992).

7) Schmitt, pp. 33-34, 슈미트, 283-284쪽.

8) C. B. Macpherson,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Hobbes to Lock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치사상 해석의 두 가지 방향이 이로써 뚜렷이 드러난다. 하나는 슈미트적 정치신학적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홉스의 사상의 당대 신학적 의미를 제거한 세속화된 버전으로서 서구 민주주의 발전사에 편입된 해석이다.

슈미트를 비롯하여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서구 마르크시즘에 대한 논의를 소개해 온 미국의 계간지 「텔로스」(*Telos*)의 2017년 겨울호 주제는 ‘전쟁과 내전’이었다. 편집장 러셀 버만(Russell A. Berman)은 서문에서, 당시 트럼프 정권 하에서 양 정당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커녕 언제 끝날지 예측 불가능한 양극의 갈등과 대치상황을 바라보며 내전을 떠올린다. 그는 미국 정치가 “전쟁을 내면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를 내린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세계질서와 안보체제가, 국제적 분쟁의 증가와 더불어 균열되는 것을 지적한다.⁹⁾ 국제 분쟁에는 강대국들과 지지 세력으로 합류한 국가들이 얽혀있기에 국제수준의 내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구적 내전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텔로스」에는 1979년 스위스의 저명한 일간지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NZZ: Neue Zürcher Zeitung*)에서 토마스 홉스 서거 300주년 특집으로 기획된 두 편의 독일어 에세이 영역본이 실렸다. 그 글들은 슈미트와 서신교환을 해왔으며 그 정치신학적 사유에 대한 학문적, 비판적 논의를 전개해 온 타우베스와 프랑스의 정치학자, 사회학자인 줄리앙 프룬드(Julien Freund, 1921-1993)의 글이었다. 그들은 홉스의 ‘현재성’(Aktualität)에 대해 논했다. 프룬드는 막스 베버, 게오르크 짐멜, 슈미트의 사상을 프랑스에 소개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두 저자는 슈미트가 1938년에 발표한 『홉스의 국가론에 있어서 리바이어던: 정치적 상징의 의미와 좌절』에서 밝혀낸 홉스 저작의 정치신학적 해석을 기반으로 하되, 슈미트적 홉스 해석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그 당대성에 대해 논했다. ‘리바이어던’이라는 절대적 주권권력의 상징을 현대의 정치적 현실 속에서 떠올리는 상황은 1938년 이래로,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1979년, 2017년을 거쳐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 역할의 중요성

9) Russell A. Berman, “Introduction”, *Telos* 181 (Winter/2017), pp. 3-5.

이 부각되면서 ‘리바이어던’이라는 키워드가 서구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다. 특히 봉쇄정책을 실시했던 유럽에서 그러했다. 2020년, 아감벤은 일련의 에세이를 통해 주권권력의 실체가 마침내 ‘리바이어던’으로 드러나고 팬데믹이라는 예외상황이 상례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¹⁰⁾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그 현재성에 대한 논의가 슈미트의 해석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4. 타우베스의 홉스와 『리바이어던』 해석

타우베스는 베르너-라이머스 재단으로부터 70년대 말 정치에 해석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를 시도해달라고 의뢰받았다. 이에 그는 세 명의 동료학자들과 더불어 공동프로젝트에 착수했다.¹¹⁾ 그 결과물인 세 권의 ‘종교이론과 정치신학’(Religionstheorie und Politische Theologie)(1983-1987) 시리즈 중, 첫 번째 책 『이 세상의 군주: 칼 슈미트와 그 귀결들』(1983)에 실린 머리말과 제1장을 여는 타우베스의 첫 글이 여기에서 살펴볼 글이다.¹²⁾

머리말에서 드러나는 것은 타우베스가 당시 이스라엘-아랍 전쟁, 이란의 호메이니 집권, 70년대 초반에야 끝난 베트남-미국 전쟁 등의 시대적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신학’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치신학은 논쟁적 영역이다. 관심사는 명확히 그 과제를 규정한다. 그렇기에 여기

-
- 10)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김태연, “코로나 시대, 서구 위기 담론에서 드러난 국가와 종교 문제: 슈미트의 정치신학적 관점에서.” 『종교문화비평』 (37/2021.9).
 - 11) 마크바트(Odo Marquard, 1928-2015)(기센대 철학), 판넨베르크(Wolfhart Pannenberg, 1928-2014)(뮌헨대 개신교 신학). 크릴레(Martin Kriele, 1931-)(퀵른대 법학), 제1권 『이 세상의 군주: 칼 슈미트와 그 귀결들』(*Der Fürst dieser Welt: Carl Schmitt und die Folgen*)(1983), 제2권 『영지주의와 정치』(*Gnosis und Politik*)(1984), 제3권 『신정』(*Theokratie*)(1987),
 - 12) Jacob Taubes, “Statt einer Einleitung: Leviathan als sterblicher Gott-Zur Aktualität von Thomas Hobbes”, Jacob Taubes (ed.), *Religionstheorie und Politische Theologie Bd. 1: Der Fürst dieser Welt Carl Schmitt und die Folgen* (Wilhelm Fink Verlag, 1983).

에서 학문적인 고찰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그 매듭을 잘라버리고 정치신학의 문제를 무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로써 종교적 상징에 잠복하고 있는 정치적 함의를 인식할 기회를 포기하게 된다. 오늘날 공공의 원형 투기장(Arena)에서, 신정(神政)에의 요구가 부상하고 범속한(profan) 영역에서 구원론이 범람하고 있다.¹³⁾

상술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 살펴볼 글은 타우베스가 바로 1979년에 NZZ에 실었던 에세이를 수정하여 자신이 편집한 책에 재 수록한 것이며 그 제목은 “서문을 대신하여: 가사의 신으로서의 리바이어던 - 토마스 홉스의 현재성”이다. 머리말에서처럼 타우베스는 세계 정치적 사건을 통해 계몽주의와 신정교권(神政敎權) 사이의 투쟁이 결코 일소되지 않았음을 재차 언급한다. 계몽주의 이래 극복된 것으로 처리된 ‘신정’이 귀환한 현실을 목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계몽주의와 정통주의 사이의 투쟁”을 “그 근원”으로부터 이해하기 위해 300여 년 전 인물인 홉스에게로 늘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우베스는 슈미트의 홉스와 『리바이어던』에 대한 신화적, 신학적 해석의 성과를 수용하되 당대의 홉스의 상황과 사유에 대해 다시 풀어냄으로써, 슈미트의 30년대 말의 해석적 경향으로부터 비판적 긴장관계를 유지한다. 슈미트는 최초로 과거의 철학적 논의를 탈피하여 신학적-정치적으로 『리바이어던』을 해석했으며, 홉스의 저작 의도를 밝혀내었다. 타우베스는 이를 “17세기로의 대약진”으로 높이 평가하지만 거기에서 멈춘다. 타우베스는 슈미트의 해석적 기여를 인정하되, 슈미트식의 리바이어던 해석과 실천적 관점에는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슈미트는 자신의 책을 마무리하는 최종 단락에서 홉스를 “위대한 정치적 경험을 가르쳐 준 진정한 스승”으로 추켜세웠다. 반면 타우베스는 자신의 글 서두 첫번째 에서 슈미트적 홉스 찬사를 갱신한다. 홉스야말로 “오늘날 모든 정치신학적 문제에 대한 스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그가 슈미트처럼 홉스의 정치신학

13) Taubes, “Vorwort”, *Der Fürst dieser Welt: Carl Schmitt und die Folgen*, pp. 5-6.

에 동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홉스를 우리시대의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한다.¹⁴⁾ 타우베스는 슈미트처럼 홉스와 그의 저술을 삶의 자리였던 17세기의 정신사적 맥락에 정위시켜 기존의 정치 이론적 의미만이 아닌 그동안 무시 혹은 간과되었던 홉스의 신화적, 신학적 의도를 자신을 비롯한 서구의 현재적 자리에서 성찰한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의 혼재가 잠시라도 허용되는 슈미트식 정치신학적 독해가 아닌, 정치와 종교의 명확한 분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정치신학적 독해를 전개한다.¹⁵⁾

4.1. 반근대성으로서의 계몽주의: 홉스의 인간론(Anthropologie)

타우베스는 30년 전쟁 후 3년 뒤 1651년에 출판된 『리바이어던』에서 드러나는 홉스의 사상을 17세기 교파간의 내전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반응으로 간주한다. 홉스가 계몽주의자였으나 회의적 세계관을 지닌 회의론자였다면, 슈미트는 근대성을 비판한 회의론자였다. 타우베스가 직접적으로 슈미트에게까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그의 글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두 인물의 공통점이다. 이들의 정치론, 국가론은 지극히 회의적인 인간론에 기반하며 이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전쟁과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기인한다. 계몽주의자들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의 이성적 주체라는 인간의 밝은 면을 지지했다면 홉스는, “계몽주의의 양지(陽地)와는 공유하는 것이 거의 없는 염세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있던 계몽주의자였다. 홉스에게서 우리는 인간의 생존투쟁을 위한 포악함이 이성에 의해 길들여짐으로써 미몽의 상태를 벗어난 계몽주의적 주체를 찾아볼 수 없다.

홉스는 인간의 자연상태를 신화적 기원으로부터 도출해낸다. 물론 이 기원은 그의 시대적 경험을 반영한다. 홉스에게는 인간의 자연상태란 모

14) Schmitt, p. 132., Taubes, “Statt einer Einleitung: Leviathan als sterblicher Gott - Zur Aktualität von Thomas Hobbes”, p. 14.

15) 타우베스는 홉스의 저술에서 정치 이론적 해석만을 해온 학계를 보면, 학계가 얼마나 쇠퇴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든 인간이 각자 자신의 생명을 지킬 자연권을 행사하기에 폭력이 일상인 “만인의 전쟁상태”이다. 모두가 동시적으로 자신의 자연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연권을 포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남에게 내어놓는 자살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인간들은 자신의 권리를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전적으로 양도하는 신의계약을 맺음으로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중은 단일한 주권적 대리인격에게로 통합되며 이로써 코먼웰스(commonwealth), 즉 국가가 세워진다. 다수의 인민이 하나의 새로운 통일적 인격이자 이성으로 탄생하게 된다.¹⁶⁾

타우베스는 리바이어던 표지의 거인형상으로부터 “정치와 신학을 경영하는 국가” 은유를 발견한다. 바로크식 우의형상화 속의 거인은 왼손에는 세속권력의 상징으로서의 검, 오른손에는 교회권력의 상징으로서의 주교의 지팡이를 들고 도시를 보호한다. 이는 국가들과 경쟁하고 있는 “로마 교황의 교권행사에 저항하는 표현”이다. 상호 신의계약을 통해 탄생한 주권적 인격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외적인 종교적 활동을 억제할 수 있으며 신앙으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막아내는데, 그가 바로 도시의 유일한 그리스도교 공동체이기 때문이다.¹⁷⁾ 복수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다. 코먼웰스에서 유일한 입법자는 주권자이며 그는 시민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주권자는 법을 제정하거나 폐지하는 절대 권한을 소유한다.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 모두가 주권자로 귀속된다. 여기에서 타우베스는 몽테스키외나 칸트가 주장했던 권력의 분할, 저항권, 근대적 국가의 운영과는 전면 배치되는 주장이 담긴 『리바이어던』에서 계몽주의적 정치철학이 아닌, 예언자적 경고를 발견한다. 그는 홉스를 “근대의 논리를 시도한 근대 초의 저돌적 정신”에 속한 인물로 평가한다. 홉스라는 한 인물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라기 보다는, 그가 홉스에게서 또 다른 형태의 계몽주의의 산물—반근대적 인물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16)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 1: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서울: 나남, 2008).

17) Taubes, p. 10.

4.2. 리바이어던, 거인, 그리스도의 통치

『리바이어던』 표지의 거인 위에 새겨진 모토는 욥기 41장 24절에서 유래한다. “지상의 권력에는 이것과 겨룰 자가 없나니”.¹⁸⁾ 비록 반유대주의적으로 나아갔으나 슈미트는 이전까지 『리바이어던』에 관한 정치철학적 해석, 주석에서 주변적으로 스쳐지나가듯 다루어진 욥기에 주목하며 최초로 이에 대한 신화적 의미를 밝혀내고자 했다. 그는 이제까지 정치적 공동체의 통일성을 거인 혹은 거체로 표현한 사상가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왜 홉스는 책제목을 욥기의 ‘리바이어던’이라는 신화적 해수(海獸)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의형상에는 위엄 있는 거인을 도입했을까?

타우베스는 홉스가 본문에서 거인(*magnus homo*)과 거대한 리바이어던(*magnus Leviathan*)을 병렬시키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때 거인은 그저 거대한 몸집을 지닌 인간을 뜻하는가? 『리바이어던』의 서설에서 홉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의] 기예(*art*)에 의해 코먼웰스 혹은 국가, 라틴어로는 키위타스(*civitas*)라고 불리는 저 위대한 리바이어던이 창조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공인간이다.”¹⁹⁾

홉스가 자신의 국가론에 리바이어던 형상을 도입한 것에 대해 슈미트는 “선한 영국적 유머에서 나온, 좀 아이러니컬한 문학적 착상”으로 간주했으며, “리바이어던이란 절대권력의 귀족, 교회와의 투쟁이라는 17세기의 정치상황에서 지고불가분, 최강의 세속적 권력을 성서가 말하는 최강의 짐승에 비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²⁰⁾ 그러나 타우베스는 이에 반론을 제기한다. ‘인공인간’이란 ‘자연스럽지 않은’, ‘초자연적’ 인간을 뜻한다. 홉스는 또한 서설의 첫 문장에서 ‘인공동물’(artificial animal)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곧 ‘인공인간’이기도 하다. 한 개인이 다른 개인과 가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일한 신의계약을 통해 통일적 단일인격으

18) 24절인 이유는 홉스가 참조한 라틴어 그리스도교 경전인 불가타에 따랐기 때문이다.

19) 홉스, 21-22쪽

20) 슈미트, 283쪽, 291쪽 각주 26), 274쪽 각주 12) 참조

로 출현하는 것에 국가 탄생의 신비가 드러난다.

이리하여 저 위대한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아니, 좀 더 경건하게 말하자면 영원불멸의 하느님의 가호 아래, 인간에게 평화와 방위를 보장하는 가사의 신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 가사의 신은 코멘텔스에 살고 있는 모든 개인이 부여한 권한으로 강대한 권력과 힘을 사용하여 국내의 평화를 유지하고 단결된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사람들을 위협함으로써 모든 개인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들어낸다.²¹⁾

이를 통해 타우베스는 홉스의 국가론을 당대의 신학적 맥락 속에서 풀어낸다. 슈미트가 간과한 신학적 부분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대한 입장은 인간에 대한 스콜라주의적 신학명제인 ‘제2의 신으로서의 인간’(homo secundus deus)을 상기시킨다는 것이다.²²⁾ 우의형상에서 드러나는 ‘가사의 신으로서의 리바이어던’은 ‘가사의 신으로서의 그리스도’와 비견된다. 거인이 검과 주교의 지팡이를 좌우로 바꿔 오른손에 주교의 지팡이, 왼손에 검을 든다면, 거인의 머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양손은 그리스도 하의 성직권력과 세속권력을 뜻하는 중세 신정론적인 상징화가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단일한 신체로 통합된 “그리스도교 공동체”(societas christiana)를 상징한다. 홉스는 “어둠의 나라”로 칭한 로마 교황 교회가 추구하는 신정론에 대한 정치적 투쟁이자 대안으로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제시한 것이다.²³⁾

그러므로 타우베스는 홉스가 제시한 인간의 자연상태론은 정치철학적이기 보다는 그리스도교 신학이 그 분향임을 강조한다. 자연상태와 관련하여 홉스는 그리스도교의 신학적 명제를 세속화하였고, 이 세속화를 통해 오히려 그 명제는 보존되었다. 신학적 관점에서 ‘자연상태’는 ‘은총의 상태’와 대조된다. 국가의 생성은 은총을 잃어버린 자연 상태로부터 시민적 은총의 상태로 인간이 변모하는 것이며 이로써 평화가 보장된다. 여기에서 타우베스는 니체가 대망한 초인, “그리스도의 영혼을 지닌 로마의 시저(der römische

21) 홉스, 『리바이어던 1』, 232-233쪽

22) Taubes, pp. 12-13.

23) Ibid..

Cäsar mit Christi Seele)”를 발견한다.²⁴⁾ 홉스는 내전의 혼란 속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만인을 통합시키는 그리스도의 영혼을 장착한 강력한 주권자의 등장을 추구했던 것이다.

타우베스의 해석은 로마 가톨릭과의 전투적 상황, 영국 국교회와 대립하는 여타 교파들간의 첨예한 갈등, 그리고 당대의 신학적 상상력의 맥락 속으로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더욱 깊이 자리잡게 한다. 슈미트적 홉스 해석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그는 당대 정치 현실과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직접 개입했던 슈미트와는 해석의 자리를 달리한다. 서구 정치와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신학적 자리에서, 서구 그리스도교의 신학적, 종말론적 전통을 깊은 이해 가운데 홉스와 그의 저작을 독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종교와 세속의 분리에 대한 중세적 전통에 대한 언급을 통해 더욱 심화된다. 다음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4.3. 홉스의 그리스도교 신학적 본향

타우베스는 서구가 자기 정체성의 표징으로 내세우는 교권과 세속권력의 철저한 구분이 사실상 매우 불안정한 것임을 지적한다. 그는 중세 그리스도교의 역사로부터 종교와 세속의 구분의 원류를 발견한다. 중세 시기 서임권투쟁(Investiturstreit)과 관련하여 교황측이 성직권력과 세속권력의 구분을 주도했으며, 이는 정치적 세속권력이 독립적으로 나아가게 된 계기였다. 타우베스는 홉스가 성직권력, 즉 교회권력이 세속권력만큼 정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기에 교권의 요구 또한 순수하게 정치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에 그는 리바이어던의 부제인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한다. 홉스는 교회권력과 세속권력 사이의 새로운 경계설정을 ‘리바이어던’이란 신화에서 모색했다. 홉스는 로마 교황의 교권은 물론, 당시

24) Ibid., pp. 14-15.

영국의 장로교파와 청교도파의 교권이 엄습하는 것이 결국 서구 그리스도교 전통의 시각에서 마치 로마 이교도들의 정교일치적 독재군주(Cäsarismus)의 탄생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그의 선택지는, 주권자가 교회권력과 세속권력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로부터 거리를 두며 주권적 결단이 내려질 수 있는 길이었다.²⁵⁾

당대 “역사적 배열을 벗어나” 홉스는 종교내전의 경험 속에서 보편적 내전(universelle Bürgerkriege)을 인간의 기본적 자연상태라는 드라마로 그려내게 되었다. 충동과 격정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이라는 비판적 인간론에서 도출된 자연상태는 사실 그리스도교의 죄론(Sündenlehre)이 세속화된 형태이다.²⁶⁾ 인간이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가 되는 만민의 만민에 대한 투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인간은 각자의 권력을 리바이어던에게 양도하는 신의계약을 맺게 된다. 이성이란 인간들이 곧 생존을 위해 리바이어던에 스스로 예측되기를 결단함으로써 등장하는 것이지 인간에게 본래적인 계몽의 빛이 아니다. 내전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개인의 권리를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현재의 내전을 극복하고 미래의 삶을 보존하는 것이 홉스가 제시하는 인간의 이성이다. 신민의 총체로서 단일한 인격으로 탄생한 이성인, 리바이어던 하에서 인간은 비로소 늑대-인간을 벗어나 진정한 인간됨(Menschenwerdung)으로 이행한다. 타우베스는 이를 “현현하는 가사의 신에 직면한 인간의 인간됨”으로 해석한다. 이때 리바이어던은 ‘그리스도’와 유비적 관계에 놓인다.²⁷⁾ 홉스는 그리스도-논리(Christo-Logik), 즉 자신의 그리스도론 하에서 자연상태의 인간-늑대가 리바이어던 앞에서 진정한 인간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풀어내었다. 타우베스는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문장을 사십 번이 넘도록 반복하고 있음을 그저 17세기의 그리스도교권 하의 시대적 한계로 지나쳐가지 않으며 그 의미를 밝혀냈다.

25) Ibid., p. 14.

26) Wolf-Dieter Hauschild, *Lehrbuch der Kirchen und Dogmengeschichte, Bd. 2: Reformation und Neuzei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0), p. 581.

27) Ibid., p. 14-15.

4.4. 서구 종교(그리스도교)와 정치의 양가성 문제

종교내전의 상황에서 홉스는 리바이어던의 상징과 자연주의적 인간론에 의거하여 성직자들의 교회권력이 결코 성스러운 영역에 머물지 않으며 지극히 정치적이란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 이는 서구에서의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기도 하다. 타우베스는 중세국가의 토대를 이루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De civitate Dei*)에 기대어 신학자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언급한다. 신의 나라와 대립하는 지상의 나라(*civitas terrena*)는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하신 악마의 나라(*civitas diaboli*)로서 영원할 수 없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적 대립 구도에 의거하여 정치적인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온 종교적인 것의 문제를 회피해갈 수 없다. 중세 신국론의 토대가 무너져버린 근대적 역사 전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방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의 나라를 수립하고, 그 나라의 세속적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²⁸⁾ 그렇다면 정치적인 것과 무관할 수 없는 종교적인 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신학적 씨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슈미트가 제기한 정치신학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이 자명하다.

타우베스는 이어 나치의 제3제국의 경험으로부터 등장한 바르트 신학학파의 정치와의 관계에 대한 양가성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는 칼 바르트(Karl Barth)의 제자인 디트리히 브라운(Dietrich Braun)의 1963년도 박사학위 논문 제1권,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론의 장소, 의미, 기능에 대한 고찰”이 언급된다. 타우베스는 “이 학파가 홉스에게서 신학적 영역에 전복적으로 잠입한 적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바르트 학파가 홉스의 그리스도론이 세속정치와 연관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경계에 대한 내용이다. 바르트는 국가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를 경험하며 종교와

28) 타우베스, 『서구 종말론』, 180-182쪽.

정치의 혼합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신학적 사유를 전개해 나아갔다. 그러므로 바르트에게 ‘종교’는 신적 ‘계시’의 반대로서 지극히 인간적 태도의 소산이다.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교로 남으려면 그리스도교적 정치, 그리스도교적 학문과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그리스도교가 나치즘을 정당화하는데 신학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종교가 정치영역으로 흡수된 역사에 대한 경고이다.

그러므로 바르트에게 ‘종교’란 인간 스스로 제작한 신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것에 불과하다. 홉스의 인공인간이자 인공신인 리바이어던은 이러한 의미의,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정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타우베스가 바르트학파의 신학이 “정치와의 관계에 대한 양가성”을 갖고 있다는 표현은 무엇인가. 인간적 정치와 계시의 건널 수 없는 간극을 강조하더라도 그들 또한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것을 떠나 국가 외부에서 순수하게 신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뜻이다.²⁹⁾

타우베스는 그러므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홉스와 『리바이어던』을 성급하게 현재화하는 시도에 대해 경고한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관습적 분류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절대주의적, 전체주의적, 파시스트적, 자유주의적인 것 등... 정치이론의 관습적 방식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은 홉스의 문제의식에 대한 정치신학적 고찰 없이 홉스의 논의를 세속화된 정치이론으로 성급하게 현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권고이다.

타우베스의 홉스 해석은 슈미트의 정치신학적 지향성을 억제하고 비판하는 해석이다. 여기에서 김효전이 슈미트가 히틀러를 신격화하지는 않았으나, 신학적, 종교적 위치만큼은 부여하지 않았을까 라고 언급한 점이 중요하다. 슈미트가 바울의 데살로니카 후서 2장 6-7절,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를 막는 자로서 종말을 지연시키는 ‘카테콘’(katechon)을 히틀러에게서 발견함으로써 나치즘에 협력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다.³⁰⁾

29) Taubes, p. 14.

30) 김효전, “부록: I. 칼 슈미트의 생애,” 칼 슈미트, 『정치신학 외』, 김효전 옮김 (서울: 법문사, 1988), 416-417쪽.

바르트처럼 타우베스는 이러한 가능성을 위협한 시도로 간주한다. 히틀러에게 카테콘을 투사함으로써 일어난 역사적 파국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이다.

정치와 신학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던 시대의 산물인 홉스의 국가론을 우리시대—현재의 정치적 입장에서부터 전체주의적이나 자유주의적이나라는 정치론적 도식에 끼워 맞추어 독해하기 전 홉스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정치신학적 접근을 반드시 숙고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5. 나가며: 타우베스의 정치신학적 해석

우리는 이제까지 서구사 속에서의 종교와 정치 문제에 관한 타우베스의 고찰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서구 그리스도교 신학과 철학적 사유에 대해 조예가 깊었던 그의 해석학적 태도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300여 년 전 홉스 당대의 근원으로부터 그 저작을 ‘이해’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그의 신학적 접근은 슈미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근대 그리스도교와 세속국가의 정치권력과 관련하여 서구 세속정치의 근본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결론부분에서 그는 홉스의 신학적이며 철학적인 그리스도론적 국가론이 헤겔의 『법철학 강요』(*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1820)에 이르러 역사철학적 프로그램에 편입되어 버리는 과정을 신랄하게 표현한다. 국가의 검열이 작동했었을 수도 있었겠으나 헤겔은 변증법적 지양을 통해 세속권력과 교회권력의 화합을 보장하는 윤리적 공동체로서의 국가를 제시했다. 종교와 세속정치는 모두 국가에서 통합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통합의 추구는 프로이센의 종교정책이기도 했다. 이성의 발전 가운데 국가는 사회 전체의 화합을 보장하는 완성된 인격체, “현현한 신”이자 “세계정신”으로 화한다. 종교내전이라는 긴박한 상황 하에서 홉스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철학적 신학적 국가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오직 하

나의 국가종교만 존재하며 그것이 리바이어던이라는 국가이성에 종속된 형태는, 절대정신의 완성을 향한 세계사적 전개 속에서 드러나는 시대이성의 한 부분으로 수용된다.

타우베스의 홉스와 그 저작, 그리고 현재성에 대한 논의는 과거의 해석이 잘못되었으며 자신의 해석이 옳다는 방식보다는 현재 상태의 진단으로 이끈다. 잊힌 과거의 문제의식 중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우리의 자리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묻는 것이다. 이것은 지배적인 해석방식의 관성을 흔들며 그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것이다. 성찰하게 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반성을 촉구한다는 뜻이 아니며, 근대적 삶과 학문의 자리로부터 비판적 거리두기를 하여 그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이끈다는 의미이다.

타우베스 사후, 그의 글들을 모아 편집, 출판한 아스만 부부와 하트비히는 타우베스의 해석학이 랍비 전통이나 가다머, 19세기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역사주의 등의 방식으로 소급되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니체, 프로이트, 벤야민, 그리고 무엇보다도 슈미트의 해석학적 방식에 타우베스가 서 있기에, 암시적이고 부차적인 것을 추적하는 해석학적 접근을 그가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 해석학은 하나의 텍스트를 지배하는 것이 위장(*Verstellung*)이며 결정적 진리의 흔적이 암호화된 소통을 가로질러 흐른다고 가정한다. 여기에서는 저자가 누구에 대항하여 그 글을 쓰는지, 글이 어떠한 핵심문장을 은폐하기 위해 써졌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핵심이다. 타우베스는 양극단으로 치닫는 적대자들이라 하여도 그들이 서로 결속되는 비밀스러운 친화성을 밝혀내는 슈미트의 비판적 감각을 공유한다.³¹⁾ 그러므로 타우베스의 해석학적 사유는 늘 경계로부터, 외부자의 위치에서 이루어진다. 아스만 부부와 하트비히의 지적처럼, 그는 “신학이나 종교사적 주제에 대해서는 철학자로서, 철학적 주제에 대해서

31) Adelaida und Jan Assman, Wolf-Daniel Hartwich, “Einleitung”, Jacob Taubes, *Vom Kult zur Kultur: Bausteine zu einer Kritik der historischen Vernunft,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 und Geistesgeschichte*, Adelaida und Jan Assman, Wolf-Daniel Hartwich (ed.) (München: Fink, 1996)

는 신학자, 종교학자로서, 그리스도교에 관해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바울적(Pauliner) 입장에서, 문화와 정치 관련 주제에 대해서는 영지주의자, 묵시주의자로서” 접근한다.

이를 통해 타우베스가 홉스와 그 리바이어던에 관해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논의하는 경향을 이해할 수 있다. 정치학, 정치철학, 철학사적 관점의 홉스 해석에서 간과되고 있는 신학적 맥락을 짚어갔다. 특히 그리스도교에서 ‘두 통치론’(Zwei-Regimente-Lehre)의 해석 문제는 서구사 속에서 신학적 교설로 한정될 수 없는데, 그것은 정치적, 법적, 역사철학적, 정치윤리적 차원 등의 복합적 현실로서 전개되어왔기 때문이다.³²⁾ 홉스와 당대의 신학적 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 하기 전에 성급히 홉스와 그 리바이어던을 현재화시키려는 것에 대한 타우베스의 비판적 언급 또한 중요하다. 리바이어던은 홉스 이래 율기의 해수로부터 신화적 인간 형상으로 부상하여 정치철학에서의 문제적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다.³³⁾ 리바이어던을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급한 탈맥락화이며, 그러한 상징을 적용하는 주체의 자기 성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서구의 자기반성으로서의 ‘종교’와 ‘종교성’에 관한 타우베스의 다면적 성찰은 오늘날의 다원적인 종교적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2) 두 통치론 혹은 두 지배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두 가지 방법을 일컫는데, 하나는 교회를 통한 통치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를 통한 통치를 가리킨다. 20세기에는 두 왕국론(Zwei-Reiche-Lehre)으로 더 자주 일컬어졌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을 구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후에 나치체제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Walter Sparr, “Zwei-Regimente-Lehre”, Friedrich Jaeger (ed.), *Enzyklopädie der Neuzeit Bd. 15* (Stuttgart/ Weimar: J.B. Metzler Verlag, 2012), pp. 636-637.

33) Ebach, “Hiob/Hiobbuch”, Gerhard Müller etc. (ed.),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XV*,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6), p. 371.

참고문헌

- 슈미트, 칼. 『정치신학 외』. 김효전 옮김. 서울: 법문사, 1988.
- _____.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 홉스 국가론에서의 리바이어던』. 김효전 옮김. 교육과학사, 1992.
- _____. 『정치신학』. 김향 옮김. 서울: 그린비, 2019.
- 타우베스, 야콥. 『바울의 정치신학』. 조효원 옮김. 서울: 그린비, 2012.
- _____. 『서구 종말론』. 문순표 옮김. 서울: 그린비, 2019.
- 홉스, 토마스. 『리바이어던 1: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서울: 나남, 2008.
- _____. 『리바이어던 2: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서울: 나남, 2008.
- Berman, Russell A.. “Introduction”. *Telos* 181 (Winter/2017).
- Ebach, Jürgen. Art. Hiob/Hiobbuch, Müller, Gerhard etc. (ed.),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XIV. Berlin /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6.
- Freund, Julien. “The Contemporaneity of Thomas Hobbes”. Samuel Garrett Zeitlin (eds., trans.). *Telos* 181 (Winter/2017).
- Hauschild, Wolf-Dieter. *Lehrbuch der Kirchen und Dogmengeschichte, Bd. 2: Reformation und Neuzei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0.
- Mehring, Reinhard. “Hobbes im konfessionellen Bürgerkrieg. Carl Schmitts Hobbes-Bild und seine Wirkung im Kreis der alten Bundesrepublik,” *Leviathan*. Vol. 36, No. 4 (Dezember 2008).
- Spam, Walter. “Zwei-Regimente-Lehre”, Friedrich Jaeger (ed.), *Enzyklopädie der Neuzeit Bd. 15*. Stuttgart/Weimar: J.B. Metzler Verlag, 2012.
- Schmitt, Carl. *Politische Theologie: Vier Kapitel zur Lehre von der Souveranität*. München/Leipzig: Verlag von Duncker & Humbolt, 1934.
- _____. *Der Leviathan in der Staatslehre des Thomas Hobbes: Sinn und Fehlschlag eines politischen Symbols* (초판: 1938). Stuttgart: Klett-Cotta, 2018.
- Taubes, Jacob. *Abendländische Eschatologie*. Bern: Francke, 1947.

- _____. “Statt einer Einleitung: Leviathan als sterblicher Gott – Zur Aktualität von Thomas Hobbes”, Taubes, Jacob(ed.), *Religionstheorie und Politische Theologie Bd. 1: Der Fürst dieser Welt, Carl Schmitt und die Folgen*.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1983.
- _____. *Die Politische Theologie des Pauls: Vorträge, gehalten an der Forschungsstätte der evangelischen Studiengemeinschaft in Heidelberg 23.-27. Februar 1987/ nach Tonbandaufzeichnungen redigierte Fassung von Aleida Assmann, herausgegeben von Aleida/Jan Assmann in Verbindung mit Horst Folkers, Wolf-Daniel Hartwich und Christoph Schulte*.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1993.
- _____. *Vom Kult zur Kultur: Bausteine zu einer Kritik der historischen Vernunft,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 und Geistesgeschichte*. Adelaida und Jan Assman, Wolf-Daniel Hartwich (ed.). München: Fink, 1996.
- _____. Leviathan as Mortal God: On the Contemporaneity of Thomas Hobbes. Samuel Garrett Zeitlin (eds., trans.). *Telos* 181 (Winter/2017).

<Abstract>

**‘Religion’ that we need to reflect on in relation to
Western modernity:
Taubes’ Political-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Hobbes’ *Leviathan***

Kim, Taeyeon

In this paper I attempt to analyze Taubes’ text on “Statt einer Einleitung: Leviathan als sterblicher Gott Zur Aktualität von Thomas Hobbes” and suggest the meaning of his interpretation and ways of hermeneutical approach. He was a Jewish rabbi and a philosopher of religion who tried to understand the spiritual and psychological inclination of Carl Schmitt and his context during the period of National Socialism. I make an attempt to shed light on the problems Taubes had and which critical approaches he tried. This paper proceeds as follows: Firstly, I consider the discursive field of philosophy in which active discussions about Schmitt’s Political Theology in relation to ‘religious matters’ are being conducted in Korea. In addition I will briefly review the context of the reception of Taubes’ works in a Korean context. Then I come to the actual context that leads to the fact that where Hobbes and his ‘Leviathan’ symbol have been frequently mentioned and discussed in the reflection on the problems of modern liberalism, parliamentary democracy and the ongoing international conflict since Schmitt’s Political-Theological approaches to Hobbes. After that I focus on Taubes’ interpretation on Hobbes. This paper will suggest that Taubes’ critical view on Western modernity, and the problem of ‘the religious’ and ‘the political’ is valid not only in the past but also still today. It will be also able to show that the interest in Taubes’ work in Korea is not just a reaction to following the trend of Western thought, but a serious consideration of the problem of Western modernity and

its history as a matter of religion and state.

Keywords: Jacob Taubes, Leviathan, Thomas Hobbes, Carl Schmitt, Politische Theologie/
political theology, Actuality of Hobbes